

강진군,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 공모 사업 선정

마량면 원포마을 ‘원포 살림 프로젝트’ 지원

강진군 마량면 원포마을이 ‘원포 살림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전라남도 인구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전남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6천만 원을 지원 받게 됐다.

이 사업은 귀농어·귀촌인과 주민이 동참해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며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다.

원포마을은 30가구 54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이중 5가구의 10명이 귀농귀촌인이다.

원포어울림마을조성회 김재관 대표는 “주민 주도형 거점 공간을 마련해 귀농어·귀촌인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가

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역민과 귀농어·귀촌인 간 흑시나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지원팀으로부터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에도 선정되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주천하는 전문 강사를 초빙 귀농귀촌인의 농촌 마을 공동체 문화 이해의 시간도 함께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무안군, 편안하고 행복한 맘카페 운영

지역민에 편안한 쉼터 제공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



무안군은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한 쉼터 제공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오는 2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총6회에 걸쳐 남악건강

생활지원센터에서 남악주민 60명을 대상으로 ‘스토리가 있는 행복한 맘카페’를 운영한다.

스토리가 있는 행복한 맘카페는 지

역주민들이 편안한 쉼을 가질 수 있는 건강 공간과 주민들의 친환경 일상을 스토리로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프로그램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이야기보따리’, ‘한지와 건강의 만남’, 함께 나눠요 지역사회건강문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야기보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주제로 토크를 나눠 주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한지와 건강의 만남’은 한지 공예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안정 및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킨다.

또한, 함께 나눠요 지역사회건강문제는 더불어 서로 어울림으로써 주민이 화합하여 스스로가 지역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프로그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목포시가 오는 9월 ‘목포사랑상품권’을 출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목포시가 발행하며, 목포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올해 목포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100억원으로 액면가 3종(5천원, 1만

원, 5만원)으로 나누어 발행되며, 개인 구매한도는 월70만원(연400만원)이다.

전통시장,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도소매업, 숙박업, 학원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소비자는 평상시에는 6% 이내, 명절 기간에는 10% 이내 범위에서 할인 구매 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다. 가맹점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카드수수료 절감 등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 된다.

목포시는 시민들의 상품권 구매 편의와 가맹점의 환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45개소 이상의 판매 대행점을 선정하고, 가맹점 1만개 이상 확보를 목표로 7월 ~ 8월 집중 모집에 들어갔다.

가맹점 신청은 사업주가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자필 서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입 수수료는 없다.

목포시가 오는 9월 ‘목포사랑상품권’을 출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목포시가 발행하며, 목포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올해 목포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100억원으로 액면가 3종(5천원, 1만

영암군, ‘청년 창업몰’ 개장

10개 점포 입점…지역 경제에 활력기대



영암군은 영암읍 5일시장 부근에 ‘영암군 청년 창업몰’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15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하여 영암군의회 의원,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읍 5일시장 장 날에 맞추어 사물놀이, 난타공연 등을

통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지역주민, 방문객들의 이목을 이끌었다.

청년 창업몰은 청년점포 10개와 청년일자리카페, 부대 이용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요식업 5개소, 문화예술 체험공방 5개소가 입점하였으며, 청년 일자리카페에는 직업상담사가 상주하여 지역의 구직자들에게 직업상담 및 취업준비 컨설팅,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지역 청년들과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이곳에는 전연식초카페, 무화과 음료, 카페, 수제햄버거, 아이스크림, 소이캔들, 공연기획·이벤트, 가죽악세서리, 코딩교육, 기념품 공방 등 10곳의 다양한 입점점포를 구성해 지역의 청년과 중장년층들에게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진도군 서망항 오징어 풍어 ‘들썩’

100여척 조업…하루 위판액 1억 원 달해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던 오징어가 요즘은 진도 서망항에서 풍어를 이루고 있다.

16일 진도군수협 서망사업소에 따르면 진도군 조도, 인근과 신안 만재도·가거도 해역에 ‘물 반 오징어 반’ 황금어장이 형성되면서 서망항에 오징어잡이 어선, 상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오징어 잡이

어선 100여 척이 조업하고 있으며, 척당 600여만원에서 1,000여만원의 위판고를 올릴 정도로 어황이 좋다.

서망항의 하루 오징어 위판량이 4,000~5,000박스에 달해 상인과 관광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오징어가 진도 해역에서 많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여름 휴가 절정기인 7~8월 중순까지 전

국으로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서망항 오징어 위판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43억원, 2011년 47억원, 2012년 81억원, 2013년 120억원, 2014년 10억원, 2015년 10억원, 2016년 32억원, 2017년 46억원, 2018년 1억원이다. 올해 위판액은 16일 현재 31억원이다.

현재 진도산 오징어는 20마리(大) 1상자에 3만5,000원~4만5,000원(위판금액)으로 값이 싸고 맛이 좋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목포해수청과 상생발전 협력

‘완도해양수산발전협의회’ 발족 현안사항 해결 논의



함께 완도군 지역 선원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완도 관내 어항 개발 사업장에 대한 민원 해소 노력 등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완도군에서는 국가어항개발사업의 계획년도 내 마무리 추진과 함께 약산 득암항 국가어항 해제와 관련 주민 건의사업 해소 낙도 보조항로 기항지 접안 시설 개선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청산 어선도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사용권의와 국가 보조항로 여객선 종편을 건의했다.

양 기관은 서로 요청한 사업 분야에 있어 주민 민원 해결 및 행정 지원에 관해서는 완도군이 노력하고 국비 확보 및 국가어항 개발 사업에 관해서는 목포해수청이 중점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신안군, ‘농수산물 판매 유통과’ 신설

1004섬 신안군이 최근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농수산물판매유통과’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조직개편은 우수한 농수산물을 생산하고도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판매유통과’를 신설, 전담 공무원 7명이 생산자, 유통업체와 함께 직접 판촉 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수도권,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대상으로 향우회, 신안출신 목회자, 군부대, 대형 식품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등 판촉 활동이 가능한 곳은 모두 찾아 나선다.

특히, 천일염 판매를 위하여, 신안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과 함께 거울철 제설용 천일염 판매를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의 각 구청, 도로공사,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할 계획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